

<인공위성 사이트>

‘우주 개발’ 한 눈에

지난달 과학계의 가장 큰 뉴스는 중국이 러시아와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다. 중국은 2003년 10월 15일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5호 발사에 성공했다. 중국의 첫우주인 양리웨이가 우주선에서 내리는 모습에 13억 중국 대륙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당시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으로 정국이 어수선하던 우리 나라 사람들은 중국의 유인우주선 발사 소식에 부러움과 질시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우리 나라 역시 90년대 무궁화위성, 우리별 위성 등 과학 기술위성이나 방송위성을 쏘아올린 적이 있지만 어디 유인우주선에 비할 것인가. 최첨단 기술력이 응집된 유인우주선은 한 나라의 우주항공기술 발전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인 것이다. 이런 상징성은 1960년대 이후 구소련과 미국이 벌인 우주탐험 경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센터(satrec.kaist.ac.kr) 홈페이지에 잘 정리된 우주탐험의 역사를 보자(이 사이트의 주인공인 인공위성연구센터는 우리 나라의 독자적인 위성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우리별 위성 개발로 유명하다). 1957년 10월 4일 구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면서 촉발된 구소련과 미국의 우주탐험 경쟁은 두 나라의 사회주의-자본주의 체제 경쟁과 맞물려 이후 구소련이 몰락할 때까지 치열하게 전개된다.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자극받은 미국이 이듬해인 1958년 항공우주국(NASA)을 설립하고 우주항공 연구에 엄청나게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두 나라의 경쟁은 마침내 1961년 유인우주선을 만들어냈다. 1961년 4월 12일 구소련의 보스토크 1호가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인 가가린(Yuri A. Gagarin)을 태우고 발사된



것이다.

미국 역시 이에 뒤질세라 다음달 5일 첫 유인 우주선인 프리덤 7호를 발사한다. 초창기 구소련이 앞서있던 두 나라의 경쟁은 그러나 1969년부터 미국쪽으로 전세가 기울어진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이 있었던 것이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했다. 특히 아폴로 11호에 탑승한 암스트롱이 달표면에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전세계에 TV로 중계되면서 우주 개발의 역사가 달라진다. 미국과 구소련의 이런 경쟁이 냉전시대 체제경쟁의 산물이라는 것은 KANTO ZONE(kantozone.com)이란 사이트에 잘 설명돼있다. 이 사이트는 NASA 등 천문우주와 관련된 정보를 매우 전문적이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 매력적인 곳이기도 하다.

한편 미국과 구소련의 전세를 뒤바꾸어놓은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에 대해서는 재미있게도 조작설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다. user.chollian.net/%7Eshs0902/space/m46.htm이란 사이트를 보면 아폴로 11호가 실제 달에 간 것이 아니라 달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놓고 촬영해서 방영했다는 조작설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글_김인진 객원기자 기자 ijinjin@hotmail.com